모두의 토론회

사회적 고립, 위기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?

주 제	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'연결의 해법' 찾기
일 시	2026. 11. 26.(목) 13:00 ~ 18:00
장 소	일산 킨텍스(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연계 · KTV 생중계)
주 최	행정안전부 · 보건복지부

토론회 한눈에 보기

'모두의 토론회'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입니다.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국민이 **3 명 중 1 명(33.0%)**이고, 어려울 때 기댈 친척·친구가 있는 비율은 **OECD 38 개국 중 38 위**입니다. 단절과 고립이 위기로 번지기 전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관계망과 공동체 모델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. 찬반을 가리는 대신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드는 **'아이디어 교류형'** 토론회로 진행됩니다.

사회적 고립이란?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거나, 힘들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. 혼자 산다고 모두 고립된 것은 아니고,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.

세 가지 질문

질문① 청소년·청년 **19~29 세 4 명 중 1 명(24.4%) 어려울 때 기댈 곳 없음**

처음 홀로 서는 삶이 막막할 때, 우리는 어떤 연결을 시작해야 할까요?

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, 불합격이 이어지거나, 가족 돌봄으로 인해 내 시간이 사라질 때, 고립의 벽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와 서로 연결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.

질문② 중장년 **50 대 10 명 중 3~4 명(37.2%) 어려울 때 기댈 곳 없음**

일과 가족의 변화로 삶이 낯설어질 때, 관계는 어떻게 다시 이어져야 할까요?

사업 실패, 갑작스러운 실직, 일과 간병 사이에서 지쳐 갈 때, 관계가 끊기기 쉬운 이런 순간에 일터 밖의 연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합니다.

질문③ 노년 **60 세 이상 10 명 중 4 명(39.4%) 어려울 때 기댈 곳 없음**

혼자 보내는 하루가 쓸쓸하게 느껴질 때, 이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

동반자를 떠나보내거나, 몸과 형편이 함께 어려워지거나, 말 한마디 나눌 일 없는 하루가 이어질 때 어르신이 이웃이나 지역과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.